

전남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1365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10개 분야

농촌 정주여건·생활 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남지역 읍·면 소재지의 경제·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집중해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10개 분야 13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5개 지구 993억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52개 지구 356억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 11개 지구 16억원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기초서비스를 집중해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지구와 선도지구, 일반지구로 나눠 진행된다. 통합지구는 배후마을을 연계한 통합지원을 위해 120억원 이하의 총사업비가 투입되고, 중심성이 높은 지역에 거점 기능을 활성화하는 선도지구는 80억원 이하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중심성이 낮은 일반 지역은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리 단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을 하는 공동 문화·복지 등의 소규모 사업과 2개 마을 이상을 묶어 추진하는 권역 단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리 단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을 하는 공동 문화·복지 등의 소규모 사업과 2개 마을 이상을 묶어 추진하는 권역 단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자연 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의 신규 공모에 대비해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내용을 결정했다.

이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리더 현장 활동가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갖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비롯해 지역 환경 개선,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 청년 일자리 박람회 '청년을 설게하다. 2017 광주 북구 일자리 박람회'가 8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송광은 북구청장과 정병석 전남대 총장, 지역청년지원센터 소장 등 구직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 공채시험

여성합격자 3연속 절반 넘어

전남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3년 연속 여성 합격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8.4세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선 8·9급 공무원 774명 모집에 1만2445명이 접수해 평균 1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88명이 지난 6월 필기시험에 응시(응시율 68.5%)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730명을 선발했다. 직렬별 합격자는 행정 396명, 지방세 19명, 시설 115명, 농업 33명, 공업 30명, 해양수산 16명 등으로 총 17개 직렬이다.

최종 합격자에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 모집한 장애인 27명, 저소득층 27명도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507명(69.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91명(26.1%), 40대 이상이 32명(4.4%)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96명(54.2%)으로 3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67년생이고 최연소 합격자 1999년생이었다.

이번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3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 신규 임용 후보자 등록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누리집(www.jeonnam.go.kr) 시험정보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시·군 인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첫 민간공원 개발사업 12개 업체 제안서

아파트 개발 반대 여론 높아

업체 상당수 사업 제안 포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송암공원(면적 52만4927㎡)과 마북공원(21만6150㎡)에 각각 3개와 4개, 수랑공원(29만6211㎡)과 봉산공원(29만4369㎡)에 4개와 1개 등 모두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54개 업체가 96개의 의향서를 낸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 상당수가 사업 제안을 포기한 것이다.

제안서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국토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존 안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킨 개선안을 내놓은데다 지역 내에서 도시공원 내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일단 기존 일정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9월 말에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 공원별로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2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4개 공원 132만3286㎡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접수 등 안내 공고를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의 부지에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부지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추진 3대 원칙에 따라 공원부지의 녹지공간 최대 유지와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형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민간공원으로 시행하되 민간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후보 각각 3명씩 압축

서류심사 완료... 22일 이전 마무리

광주 최대 공기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본부장 인선이 오는 22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조용준 사장 퇴임 이후 3차례의 사장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도시공사의 업무가 사실상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경영·사업본부장의 임기가 22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에 각각 5명이 응모했으며, 8일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합격자를 각각 3명으로 압축했다.

공사 측은 오는 15일 면접 후 윤장현 광주시장에

계 2배수로 추천할 방침이다.

면접대상자는 전직 공무원, 전 도시공사 임원, 전 민간업체 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맡아 추진해야 하는 만큼 경영·사업본부장이 광주시와 이들 사업의 사전조율이나 협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 산하 4대 공기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올해 본예산은 1710억원에 이른다. 남구 도시첨단조성사업, 첨단3지구 개발사업, 역세권개발 등 13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3 vs 133... 420년전 명량해전 신화 재연에 4만명 몰려

전남도 '명량대첩축제' 성료

1597년 정유년,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은 13척으로 왜군 수군 133척을 맞아 울돌목에서 '불멸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리고 420년이 지난 9일 명량해전의 신화가 재연됐다.

전남도는 지난 8~10일 사흘간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 일원에서 '2017 명량대첩축제'의 장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지난 9일 열린 명량해전 재연 행사였다. 4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420년 전 명량대첩의 영광을 지켜봤다.

올해 정유년은 명량대첩 7주갑(60갑자가 7번 반복된 420년)을 맞는 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이 참여했다. 조선 수군 역할 89명, 일본 수군 역할 400

명 등 5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나섰다.

이들은 복원 판옥선 1척과 어선을 판옥선으로 꾸민 치장 판옥선 12척, 일본 수군 선박 48척에 각각 나눠타고 1597년 정유재란 당시 13척으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신화를 재연했다.

해전 재연 후에는 조선 수군의 후예인 해군이 구축함 7대, 헬기 2대 등을 동원한 화려한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 한·중·일 3국의 후손들과 주민들이 420년 전 당시 희생자를 기리며 국화 수전 송이를 바다에 헌화했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축제를 통해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 韩中传统文化交流

한중

전·통·문·화·교·류

중국하얼빈시 가극원민악단 초청 특별공연

캐지나칭칭 놀자	빅사이즈
민악합주 <희양양>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합주 <월아오경>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합주 <나리꽃>	하얼빈가극원민악단
<풍물판굿>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스웨이 <푸시켓 돌스>	준댄스아카데미
록산느 탱고 <물랑루즈 OST>	준댄스아카데미
진도북(춤) 놀이	내드름예술단
민악중주 <나비와 파랑>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독주 <락화. 밤>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독주 <포도가 익었네>	하얼빈가극원민악단
<열정! 국악과 라틴 사랑에 빠지다>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준댄스아카데미
	내드름예술단 콜라보
민악합주 <자죽도>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합주 <환 심>	하얼빈가극원민악단
민악합주 <아리랑>	하얼빈가극원민악단

2017. 9. 16 (토) Sat 5:30pm 5·18 민주광장 야외무대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광주문화재단 문의 | 062) 670-7462